

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

'06. 3월 대통령님께서 아프리카를 순방하신 이후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「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」을 전문가회의, 대외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하였는 바, 그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.

〈핵심 요약〉

1.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가치

-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
 - * 아프리카(53개국)의 GDP는 세계 전체의 1.81%에 불과한 상태(한국 : 1.77%)
 - 이에 따라 아프리카를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하고,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
- Post BRICs 시장과 신흥 자원개발시장으로 부상
 - 경제성장 추세(5%대)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
 - * 아프리카의 수입 증가율(%) : ('88~'97) 5.5 → ('98~'07) 10.8
 - 석유,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여 중동지역 대체가 가능하며, 자원개발사업 개방도도 높아 자원협력과 개발참여 여지가 많음
 - * 세계매장량 중 아프리카 비중 : (석유) 9.5%, (천연가스) 8.0%, (백금) 80%
 -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건설, 자원개발, 산업화 등 개발 투자로 플랜트·건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2의 중동으로 부상
 - * 알제리는 '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
 - 이동통신, 인터넷, 통신망 등 IT수요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
 - * '00~'05년간 이동통신 증가율(53%)이 세계 평균증가율(24%)를 크게 상회
-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 비중(8%)과 경제협력협정 체결 부진 등 한국의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은 미흡
 - 對아프리카 수출은 꾸준히 증가('06: 98.5억 달러, 수출총액의 3.1%)하고 있으나,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미미
 - 對아프리카 투자는 약 12억 달러('06년 누계, 전체해외투자의 1.7%)로 빈약

2. 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

① 선택과 집중에 따른 "3 plus 3" 거점국가 진출전략 추진

-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시장개척노력 집중
 - * 거점국가: 대통령 순방 3개국(이집트, 알제리, 나이지리아)과 신흥유망 3개국(남아프리카공화국, 앙골라, 리비아)
- 신흥 유망시장으로 거점국가 가치가 높고 각종 지역경제통합체를 주도하고 있는 남아공과 FTA 체결
 - * FTA 체결시 한국과 남아공의 對상대국 수출은 각각 35.7%, 11.9% 증가

② 한국형 자원확보 모델 정립

- 자원개발과 경제협력 프로그램(산업인프라, 에너지플랜트, 철강, 교육·의료 등)을 연계하는 패키지 진출 확대
 - * (사례) 인프라(발전소·철도) 건설사업과 연계한 나이지리아 유전개발권 획득
- 정상외교, 초청외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에너지·자원 부국과 전략적 자원외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

③ 고부가가치 시장(건설·플랜트, IT 등)에 대한 전략적 진출 강화

-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과 정확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여 건설·플랜트시장 진출을 지원
-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(남아공, 이집트, 알제리 등)를 중심으로 전자정부, SI,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에 차별화된 IT진출 확대

④ 한국의 성장모델 전파 및 개발협력의 지원 확대

-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 추진
 - * 한국형 개발경험과 성장모델, 한류 등을 전수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와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
- 국가이미지 제고, 자원확보 등을 위해 개발원조를 확대하되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아프리카의 협력니즈를 조합하여 지원
-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확대하여 對한국 시장접근 지원
 - * 시장접근 혜택품목 확대 : (현재) 87개 → (향후) 최대한(116개) 확대

I. 검토 배경

- 중국,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원확보, 무역확대, 투자진출 등을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와 경제협력을 확대 중
 - 우리나라도 미래의 잠재시장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아프리카를 21세기 새로운 협력파트너로 인식할 필요
- '06.3월 대통령의 아프리카(이집트·알제리·나이지리아) 순방과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 발표 이후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
 - 미래지향적·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
- 이에 한국에 있어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협력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「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」을 제시

II.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평가

-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53개의 이질적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영세
 - 5개국(남아공, 이집트, 알제리, 나이지리아, 모로코)이 아프리카 전체 GDP의 70%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별로 경제력 격차가 심함
 - 대부분의 국가가 2~3개의 1차 상품에 의존하는 모노컬처(monoculture)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규모도 영세*

< 아프리카의 GDP ('05년 기준) >

국 가	GDP(백만 달러)	비 중(%)
세계 전체	44,688.30	100
아프리카 전체(53개국)	808.62	1.81
• 아프리카 5개국	584.29	1.30
• 사하라 이남 48개국	625.66	1.40
한 국	791.57	1.77

* 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7*

-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는 추세
 - (비관론) 오늘날 아프리카 제국이 당면한 저개발은 구조적인 문제로 처방이 쉽지 않고 위험요인이 많음
 - (낙관론) NEPAD* 등에 의한 정치적 안정, 꾸준한 경제성장(5%대) 등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대두
- * NEPAD : New Partnership for Africa's Development('01. 7)

III. 경쟁국의 아프리카 접근 전략

- 중국은 대규모의 원조제공과 정상방문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자원개발과 경제협력에 주력
 - 공항, 고속도로, 학교 등의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의료지원, 인력 초청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
 - * 제3차 중국-아프리카 협력포럼('06. 11, 북경)에서는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을 초청해 부채전액을 탕감하고, '09년까지 원조규모를 2배로 증액하는 등 대규모 원조 제공
 - 방문외교를 통해 파상적인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, 특히 자원의 패권주의가 덜한 신흥 산유국에 대한 외교력 강화
 - * 중국 지도부의 아프리카 방문 : ('06년) 3차례 16개국, ('07년) 2차례 15개국

- 미국은 대체석유시장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을 경계
 -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공급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프리카를 새롭게 인식하며 아프리카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
 - * 미국의 아프리카석유정책그룹(African Oil Policy Initiative Group)은 아프리카 원유도입을 '15년까지 2.5배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석유 비중을 15%에서 25%로 제고할 계획

- EU는 중국,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 강화로 기득권 약화를 우려하며 FTA 체결, 원조확대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공고화
 - EU는 「아프리카 전략」을 채택('05. 12)하고 아프리카 원조규모를 확대('03년 170억 유로 ⇒ '10년 250억 유로)할 것이라고 선언

- 일본은 TICAD(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) 회의, 개발원조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강화
 - TICAD라는 대규모 협력포럼을 통해 善政(good governance)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, 통상확대와 민간투자를 촉진
 - 「아시아·아프리카 정상회의」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규모('03년 현재 7억 달러)를 향후 3년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('05. 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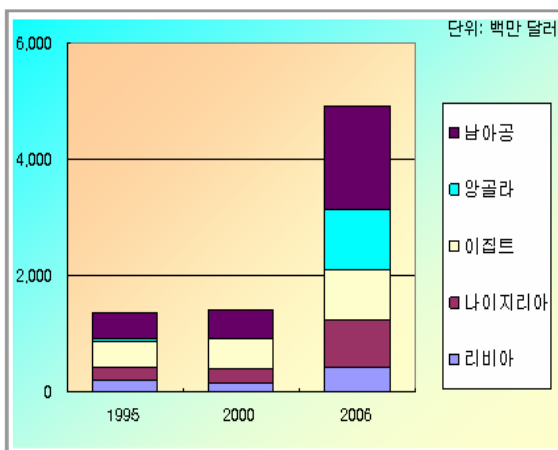
IV.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

- 아프리카 시장을 Post BRICs 시장으로 선점할 필요
 - 최근의 경제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아프리카는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
 -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,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도 좋은 편이어서 시장 확대가 가능
- 자원 확보는 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가장 큰 의의
 - 아프리카는 석유, 천연가스, 백금·망간 등의 자원이 풍부한 신흥 자원개발 시장으로 협력여지가 많으나 우리의 투자규모는 미미
 - * 세계매장량 중 아프리카 비중 : (석유) 9.5%, (천연가스) 8.0%, (백금·망간) 80%
 - 중동을 대체할 에너지도입 다변화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인식하고, 중장기적 자원협력과 투자진출을 강화할 필요
-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·건설 산업이 급성장할 전망
 - 아프리카 국가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인프라 건설, 자원개발 등을 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플랜트·건설 수요가 확산 중
 - * 알제리는 '09년까지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
 - 자원개발과 연계한 플랜트·건설 진출까지 고려하면 아프리카 시장은 '제2의 중동'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
-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정보통신(IT) 수요가 급성장 중
 - 지형 여건, 유선전화 설치비용,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이동통신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IT산업이 새로운 성장섹터로 등장
 - * 최근 6년간('00~'05) 아프리카의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율은 53%로 세계 평균증가율(24%)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보급률은 20% 미만
 - 인터넷 보급률은 3.0%에 불과해 통신망시장도 성장가능성이 높음
- 아프리카는 자원확보나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인식할 필요
 - 아프리카(53개국)는 UN 회원국(192개국)의 28%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외교역량과도 직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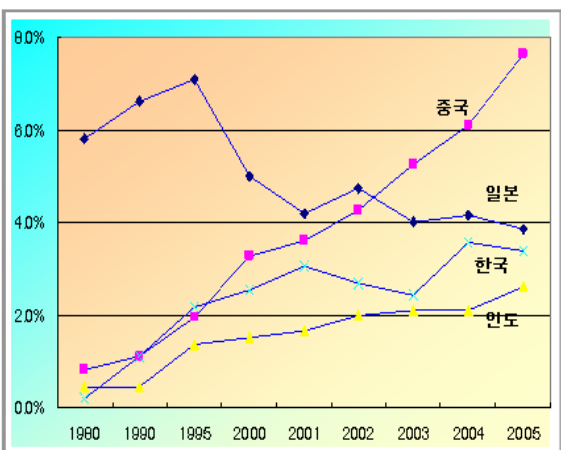
V. 한-아프리카 경제협력 추진현황 및 평가

- 외교 인프라 부족, 빈약한 개발원조(ODA) 규모 등으로 아프리카의 전략적·다중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은 미흡
 - 상주공관 설치 국가는 53개국 중 16개국에 불과하며, 주요 산유국인 콩고와 앙골라에는 외교공관 조차 없는 상태
 - 對아프리카 ODA 지원 비중은 8%(39.1백만 달러)(‘05년 기준)에 불과하며,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협력협정 체결*도 부진
 - * 對아프리카 경제협력협정 : (투자보장협정) 6개국, (이중과세방지협정) 3개국
 - 그러나,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(‘06.3)의 채택으로 향후 對아프리카 개발원조 규모가 확대될 전망
- 아프리카와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황
 - 對아프리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‘06년에는 100억 달러(수출총액의 3.1%)에 근접하였으며, 자원수입*도 증가하는 추세
 - * 對아프리카 수입의존도(‘04~’06 평균)(%) : (석유) 3.7, (백금) 36.4, (금) 21.0, (동) 4.9
 - 수출의 50% 이상이 5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, 아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은 2~3% 수준으로 미미한 가운데 증가폭도 둔화 추세

우리나라의 아프리카 5대 수출시장



아시아 주요국의 아프리카 수입시장 점유율



- 對아프리카 투자실적은 약 12억 달러(‘06년말 누계)로 전체 해외투자액의 1.7%에 지나지 않는 등 아직 빈약한 단계
 - 對아프리카 투자진출이 빈약한 것은 아프리카가 여러 측면에서 아직 투자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

VI. 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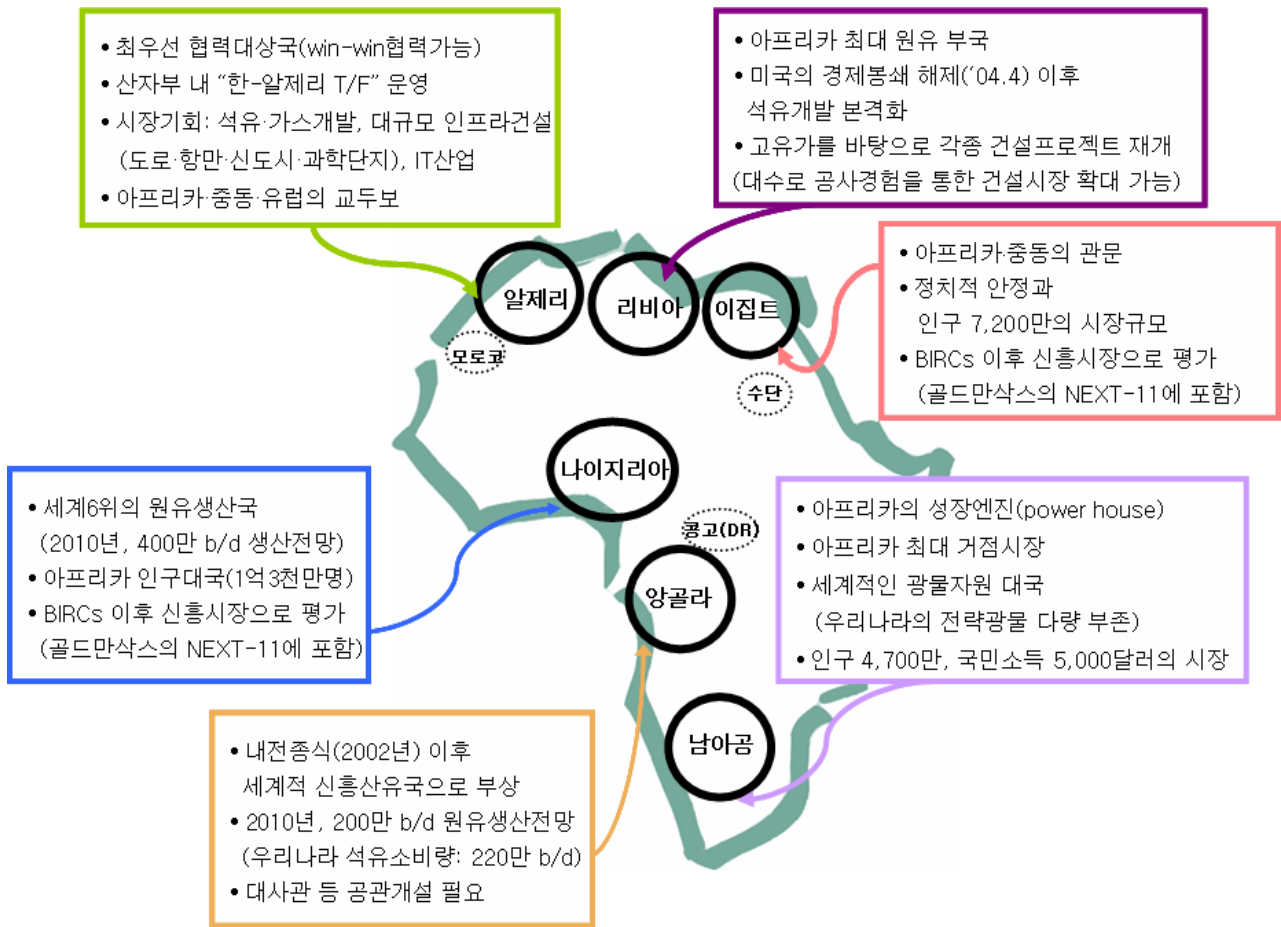
- ◇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접근시 협력이 유망한 거점국가를 발굴하고,
- ◇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를 FTA, 자원개발, 건설·플랜트, IT협력 등 분야별로 제시

1. 기본방향

-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협력 추진
 -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('06. 3) 이후 한·알제리 Task Force 설치, 한·아프리카 포럼 개최('06. 11) 등 對아프리카 협력 분위기가 고조
 - 그러나, 이러한 對아프리카 협력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
- 경제적 이익추구와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
 -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되 보다 큰 틀에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협력모델을 개발·추진
 - 과거 우리의 아프리카 외교는 국제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, 향후에는 경제적 이익과 개발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
 - 이를 위해 對아프리카 협력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를 충실히 이행
- 선택과 집중에 따른 “3 plus 3 거점국가 진출전략” 추진
 -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와 동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
 - 따라서,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아프리카 시장을 효율적으로 접근
 - 거점국가로는 대통령 순방 3개국(이집트, 알제리, 나이지리아)과 신흥유망 3개국(남아공, 앙골라, 리비아) 등 ‘3 plus 3’ 국가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

(2007. 5. 22, 기획과제 최종보고서,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)

< 아프리카 거점국가(3 plus 3) 진출전략 >



2. 주요 정책과제

1 무역투자 협력 강화: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 체결

□ 거점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과 아프리카간 실질적 경제협력의 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○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신흥 유망시장* 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가 높음

* 아프리카 전체 경제규모와 총교역의 약 25%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 경제를 주도

○ 남아공은 각종 경제통합체를 주도하고 있어 남아공과 FTA 체결시 남아공과 경제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근국가로도 진출 가능

□ 한·남아공 FTA를 체결할 경우, 양국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전망

* 한국의 對남아공 수출은 35.7%, 남아공의 對한국 수출은 11.9% 증가(KIEP)

2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 정립

- 자원개발과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진출 추진
 - 아프리카 자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한된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패키지형 진출 전략이 필요
 - * 사례 : 인프라(발전소·철도) 건설 사업과 연계한 나이지리아 유전개발권 획득
 - 건설·플랜트뿐만 아니라 IT, 조선, 철강, 의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대한 심층적 정보를 축적
- 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 자원외교와 협력을 대폭 강화
 - 자원개발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세제상의 지원보다 외교적 지원이 더 중요
 - 따라서, 정상외교, 초청외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에너지·자원 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

3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설·플랜트시장 진출 확대

- 종합적인 시장조사 기능과 프로젝트 정보망을 구축
 - 아프리카는 불확실성이 높고, 프로젝트 발주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정보 입수채널의 구축이 수주 성공여부의 관건
 - 따라서, 건설·플랜트 발주가 많은 북아프리카 거점지역에 프로젝트 발주정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주재관의 파견을 검토
 - 유망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ODA 지원을 통한 타당성 조사나 개발조사(Development Study)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
- 현지정부, 발주처 등과의 밀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출여건을 조성
 - 알제리, 리비아 등 신흥 건설시장의 경우 관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요 부처나 발주처와 지속적 유대관계 구축이 중요

4 IT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IT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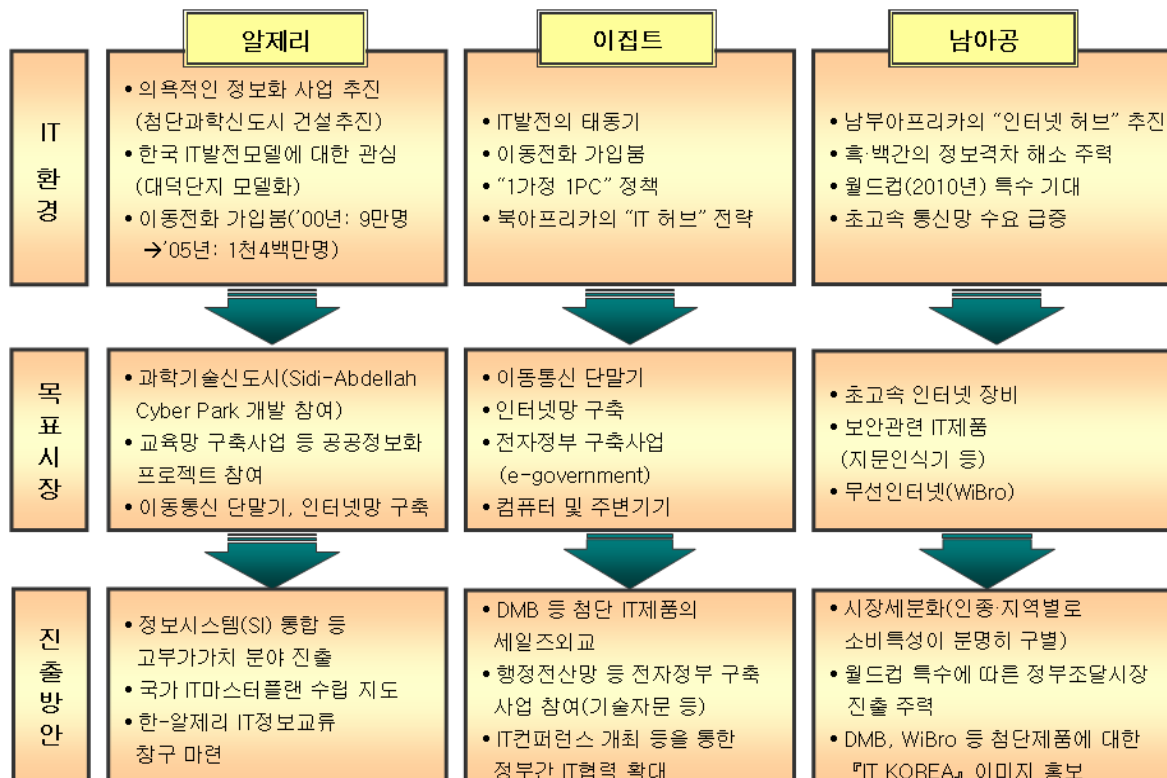
□ 정보격차(Digital Divide) 해소지원을 통해 IT협력기반을 구축

- 아프리카의 정보격차 해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IT리더로서 IT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추진
 - *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, 아프리카의 경우 일부 국가와 연수생 초청사업에 한정
- 지원대상 국가를 그룹화하여 기술·정책자문, 연수생 초청, 봉사단 파견 등 그룹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별화

□ 협력 가능성이 높은 유망국가를 선정하여 IT협력을 강화

- IT시장환경, 정책의지, 인적자원, IT인프라, 관련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하여 IT협력 중점국가를 선정
- 비교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알제리, 이집트, 남아공 등 아프리카의 신흥 통신강국을 IT 협력 중점국가로 선정
 - * 전자정부, SI(시스템 통합), 통신망 현대화 등의 분야에 협력·진출

< 아프리카 중점국가별 IT협력 방안 >



5

개발협력 지원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

□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합당하게 개발원조(ODA) 확대

- 우리나라의 ODA 규모('05: 4.63억 달러)는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의 1/10 수준에 불과하며 아시아 지역에 편중(81%)

*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ODA 비중('05: 0.39억 달러)은 8.4% 수준에 불과

- 국가이미지 제고,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, 에너지·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對아프리카 개발원조를 확대할 필요

* 우리나라는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('06. 3)에서 對아프리카 ODA를 '08년까지 3배로 증액할 것을 선언

□ 원조의 내실화를 통해 아프리카 지원효과를 극대화

-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*와 아프리카의 협력니즈 조합에 입각한 내실 있는 원조를 통해 국가브랜드와 지원효과를 제고

*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: 한국형 개발경험·한류 전수, 인적자원개발 지원, IT 리더로서의 역할(IT기술, 통신망 구축지원), 보건·의료시설 확충 등

-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정 모범국가를 선정*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

* 정치·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탄자니아, 가나, 보츠와나 등을 모범국가 대상으로 선정

□ 특혜관세제도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對한국 시장접근을 지원

- 아프리카 최빈국들은 수출을 확대할 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접근 혜택품목을 현재의 87개에서 최대한 확대

* 우리나라는 「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」를 통해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해 무관세·무쿼터 수입품목의 확대를 약속

- 무역을 통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향유했던 특혜관세 혜택을 나누어 줌으로써 아프리카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형성